고급중학교『국어문학』교과서에 나타난 북한 문학교육의 특성

- 현대소설/영화 단원을 중심으로 -

박 기 범(전주대 국어교육과 부교수)

〈 목 차 〉

1. 서론
2. 북한의 현행 2013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고급중학교『국어문학』 교과서
3.『국어문학』교과서 현대소설/영화 단원의 제재와 교육 내용
4.『국어문학』교과서 현대소설/영화 단원의 교수-학습 활동
5.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북한의 현행 2013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급중학교 <국어문학> 과목의 교과서와 교수참고서를 대상으로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대소설/영화 교육의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북한의 문학교육과 현대소설/영화 교육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국어문학> 과목을 통해 국가에 이바지하는 충성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정치사상 교양과 혁명적 정서를 키워주는 동시에 사회생활에 필요한 말과 글, 문학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충분히 체득시키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삼고 있다.

북한의『국어문학』교과서는 주제 중심으로 편성되었고, 이전 교육과정기의 교과서에 비해 더욱 실질적이며 체계적인 단원 구성을 취하고 있다.

www.kci.go.kr

북한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소설의 비중이 더 커지며 수록 분량도 많아진다. 또한 해방 이전의 작품보다 해방 이후의 작품이 많으며 세계 명작도 초기자본주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활용하였다. 작품의 주제는 대부분의 작품이 김일성 일가와 조국에 대한 충성으로 수렴될 수 있으며, 토지개혁, 조국해방전쟁, 천리마작업반운동, 농촌경제의 개조, 철도건설, 광산개발 등의 시대적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여 평범한 인물이 사회주의적 영웅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과 그 활약상을 그린 작품, 과학기술이나 근면한 생활태도를 중시하는 작품들이 실렸다. 이러한 작품 선정은 북한의 역사관과 문학사에 근거한 것이다.

북한은 작품의 갈래에 관한 지식이나 작가의 문학적 업적에 관한 내용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또 북한에서는 영화를 교육 제재로 상정하여 영화에 관한 다양한 학습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국어문학』 교과서에서는 '지식 습득→문학작품을 매개로 한 다양한 언어 사용 활동→태도 형성'으로 학습활동이 전개되도록 하여 초등교육부터 중등교육까지 높은 학년으로 갈수록 문학을 중심으로 좀 더 심화 발전된 언어활동을 통해 통합적인 언어 사용 능력 배양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재 차원의 탐구가 향후 남북한 통일 이후의 문학교육의 방안을 설계하는 데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북한 문학교육, 북한 현대소설 교육, 고급중학교 『국어문학』 교과서, 남북한 통일 대비 교육

1. 서론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여러 방면에서 큰 변화를 시도했는데, 교육 분

www.kci.go.kr

야 역시 학제를 비롯하여 교육 정책 면에서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대폭적인 교육 개혁은 모든 것이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자국의 교육 체제가 뒤처져서는 안 되며, 그들이 염원하는 주체적인 강성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 분야의 혁신이 가장 긴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3년에 북한이 새로 개정한 교육강령(교육과정)에서는 과학기술교육, 정보화교육,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김정은 관련 정치사상 과목도 신설하였다.[1] 이처럼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컴퓨터와 인터넷의 정보화교육에 매진하며, 세계화시대에 발맞춰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근래에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혁신 방안들이다.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독재국가로 낙인찍힌 북한마저도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려서부터 선진국에서 교육을 받은 김정은의 이력을 고려해 볼 때, 자신들의 자존과 긍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길이 교육 혁신에 있음을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잘 알기에 김정은은 집권 이후 본격적으로 교육 개혁에 나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견고하게 북한의 교육 정책을 지배하고 있는 최우선적인 교육이념은 김일성 일가를 비롯한 노동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된 인재 양성이다. 김 씨 3대 정권은 집권 기간 내내 그들의 체제 유지와 국가 경영의 핵심으로 교육 분야를 상정하고 교육 제도와 교육과정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처럼 전체주의 통제 사회인 북한의 실상을 고려할 때, 북한 사회에서 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목표에서도 확인된다.[2]

---

1) 조정아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KINU 연구총서 15-03, 통일연구원, 2015, 11-18면.

2) 이 글에서 북한 자료를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원문의 표기법을 그대로 따랐음을 밝혀둔다.

www.kci.go.kr

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3]

이처럼 가장 근본적인 교육이념에서부터 남한과 큰 간극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교육에 대해 지금 우리가 다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문제가 민족공동체의 회복과 통일한국의 건설이라는 당위적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에 만나게 되는 선결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정세를 보자. 지금 세계 각 나라는 자국의 실리만을 추구하며 국가 간에 첨예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제는 그 어느 나라도 영원한 우방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엄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미래에도 지속적인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남북한의 통일이 가장 시급한 민족적 과업임에 틀림없다. 특히 얼마 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의 대립을 청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다시금 통일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당면 과제인지를 환기할 수 있었다.

그동안 국어교육 학계에서도 남북한의 통일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차원에서 가늠해 보는 학술적 논의가 진행되었다.[4] 그 중에는 통일이 갖는 이상적 가치나 당위적 목표에 매몰되어 단순한 구호나 선언에 머무르는 발표도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수준의 방안까지도 제시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남북한 간의 차이, 그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에서의 간극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에서 앞으로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2016; 이경화, 「북한 중등 교과서의 현대시 제재 수록 양상 고찰」, 『문학교육학』 62,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227면 재인용.

4) 최근의 논의와 성과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한 연구과제(김진숙 외,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연구(Ⅰ)~(Ⅲ)』와 2018년 개최된 '통일 교과서 학술 심포지엄'과 '통일 초등 국어 교과서' 개발 성과 등을 들 수 있다.

www.kci.go.kr

계승할 점이나 발전시킬 점 등에 관한 논의까지는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분단 이후 75년이나 흐른 오늘날, 남한과 다른 북한의 국어교육의 구체적인 면모나 양상을 살피는 것은 더욱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필요한 연구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현행 북한 고급중학교 교과서와 교수참고서를 대상으로 북한의 국어교육(문학교육) 양상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막상 통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북한 교육의 실태와 현황을 들여다보려고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살펴보면 동질감보다는 이질감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어떤 선행 연구자는 "당과 수령의 교시를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혁명가계를 우상화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미화하며 남한과 미국에 대해 왜곡하여 비판하는 모습 등"이 북한 교과서 곳곳에 등장하는데, 이 같은 사회주의 이념에 따른 정치적 편향성은 북한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경직성을 확인시켜주면서 오히려 심리적 거리감만 안겨준다고 고백하는 것이다.[5)]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질감을 극복하고서 동질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긴요하다. 차이와 다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하고 개선하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간극을 줄여 나가며 궁극적으로는 통일된 국어교육과 문학교육을 계획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선의 통일된 교육 목표 설정이라는 과제를 염두에 두고, 남한과 북한의 교육 양상을 대비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서로에게 부족한 점은 무엇이며, 서로가 참고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대목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필요성에 의해 근래에 들어 북한의 2013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최영지(2017), 홍지혜

5) 최홍원, 「동질성과 이질성의 길항과 통일 문학교육의 도정-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해 본 통일 문학교육의 방향과 과제」, 『문학교육학』 62,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45면.

www.kci.go.kr

(2018), 진용성 · 차해나(2018), 강보선(2018), 권순희(2018), 주재우(2018a), 주재우(2018b), 박기범(2019), 최홍원(2019a), 엄인영(2019), 변경가 · 권순희(2019), 최창헌(2019), 이경화(2019), 최홍원(2019b)가 대표적이다.[6] 특히 이 중에서 이경화(2019)의 경우에는 북한의 고급중학교 교과서인 『국어문학』을 중심으로 현대시 제재 수록 양상을 이전의 교과서와 비교하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대소설/영화 단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없었기에 이 연구에서는 현대소설/영화 단원을 중심으로 북한의 문학교육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은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7]

---

6) 최영지, 「남북한 국어 교과서의 비교 연구-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7; 홍지혜, 「북한의 2013 국어과 교육과정과 국어 교과서 분석 연구-북한 초급중학교 『국어1, 2, 3』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8; 진용성 · 차해나, 「북한 소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2013)와 남한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2017)의 비교 연구」, 『청람어문교육』 66, 청람어문교육학회, 2018; 강보선, 「북한 초급중학교의 학교문법 내용 분석」, 『국어교육』 161, 한국어교육학회, 2018; 권순희, 「2013년 개정 북한 국어 교과서 분석」, 『국어교육학연구』 53(3), 국어교육학회, 2018; 주재우, 「김정은 시대의 북한 초급중학교 국어교과서 분석」, 『독서연구』 48, 한국독서학회, 2018; 주재우, 「북한 초급중학교 쓰기교육 내용 분석-북한의 2013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작문연구』38, 한국작문학회, 2018; 박기범, 「북한 초급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 문학교육의 특성」, 『한국문학논총』 81, 한국문학회, 2019; 최홍원, 「동질성과 이질성의 길항과 통일 문학교육의 도정-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해 본 통일 문학교육의 방향과 과제」, 『문학교육학』 62,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엄인영, 「북한 국어, 문학 교과서의 주체사상 교양 교육의 내용 요소 탐구」, 『문학교육학』 62,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변경가 · 권순희, 「북한 고급중학교 『국어문학』에 수록된 제재 양상 및 특징-김정은 시대의 2013 교육강령 및 교과서를 대상으로」, 『우리말연구』 56, 우리말학회, 2019; 최창헌, 「남한 『문학』과 북한 『국어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문학 작품의 비교 연구-김소월의 「초혼」과 최서해의 「탈출기」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23, 구보학회, 2019; 이경화, 「북한 중등 교과서의 현대시 제재 수록 양상 고찰」, 『문학교육학』 62,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최홍원, 「북한 문학교육을 통한 문학교육론의 투시와 성찰-북한의 2013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64,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7) 『국어문학』 교과서는 남한의 4차 교육과정 이전 시기의 교과서처럼 국판(148×210mm) 크기로 작으며, 『국어문학교수참고서』는 크라운판(176×248mm)으로 이보다는 크

www.kci.go.kr

[표 1] 고급중학교『국어문학』교과서 및『국어문학교수참고서』

대상 교재	집필진	쪽수	발행일	펴낸 곳
국어문학 (고급중학교 1학년)	황금순, 최학, 배창국, 라성학, 정애련	191	2013. 8.19.	교육도서 출판사
국어문학 (고급중학교 2학년)	최학, 황금순, 정애련, 배창국, 라성학, 안철권	271	2014. 8. 8.	
국어문학교수참고서 (고급중학교 1학년)	라성학, 리정철, 전은숙, 리은정	247	2013. 12.19.	

북한에서는 새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1, 2, 3학년용『국어문학』교과서를 2013년부터 매년 순서대로 발행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1, 2학년용 교과서와 1학년 교수참고서만 대상으로 삼았다. 아쉽게도 3학년용 교과서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급중학교 전체 학년의 교과서를 살펴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향후에 3학년 교과서와 2, 3학년 교수참고서를 확보하게 되면 이 연구의 논의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교재 차원의 탐구가 향후 통일 이후의 문학교육의 방안을 설계하는 데 유용한 참고가 되기를 기대하며, 다음 장에서는 먼저 북한의 현행 2013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체제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게 제작되었다. 또한『국어문학교수참고서』는 맨 뒤에 있는 판권에 7000부가 제작되었다는 기록도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www.kci.go.kr

2. 북한의 현행 2013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고급중학교 『국어문학』 교과서

김정은 집권 이후 교육 분야에서 이뤄진 첫 번째 개혁 조치는 학제 개편이었다. 북한은 2012년 9월 25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제정하여 학제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는 1975년 이래로 적용되던 11년제 의무교육을 1년 더 연장한 것으로 '인민학교'에서 '소학교'로 명칭을 변경한 초등교육을 기존 4년제에서 5년제로 늘인 것이다. 또한 중등교육을 기존에는 '고등중학교' 6년제였는데, 이를 남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처럼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각 3년제로 분리하였다. 여기에 북한은 취학 전 교육기관으로 2년제 유치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취학 직전의 1년이 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왔기에 총 12년의 의무교육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학제 개편은 김정은 집권 이후 그들이 표방하는 대로 '교육에서의 실리주의'에 입각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초등교육을 강화하고 중등교육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8]

이에 따라 국가 수준의 교육 목적과 목표, 교육 내용과 방법 및 평가를 규정한 교육과정도 개편하게 되는데, 북한에서는 '교육과정'이라는 용어 대신 '교육강령'[9]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여기에는 남한 교육과정의 총론에 해당하는 '과정안'과 교과별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수요강'이 있다.[10]

북한의 현행 2013 개정 교육과정 중에서 국어 과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선행 연구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그 주요 특징만을 아

8) 조정아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KINU 연구총서 15-03, 통일연구원, 2015, 11-49면.

9)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북한의 '교육강령'을 우리에게 익숙한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일컫기로 한다.

10) 김진숙,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에 따른 학제와 교육과정 개정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16년 6월호, 14면.

www.kci.go.kr

래와 같이 요약적으로 제시한다.[11]

북한에서 국어 과목은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지식과 언어실천 능력 습득, 사상교양과 정서교양 실현, 사고력 배양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또한 국어 과목의 교수목적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김정일애국주의의 정신'이라는 이념적인 차원에서 그 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교수목표는 좀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말과 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라는 태도 형성과 '영역별 지식과 기능의 체득'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국어 과목의 하위 영역으로는 학교 급별로 상이한데, 그중에서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의 경우에는 듣기교육, 읽기교육, 말하기교육, 글짓기교육, 기초원리지식교육으로 영역을 구분하는데, 남한과는 달리 문법이나 문학 영역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이들을 다른 언어 사용 영역에서 통합해서 다루되, 문법과 문학의 기초적인 지식만을 별도의 '기초원리지식' 영역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다. 즉 기초원리지식 영역의 경우, 초급중학교 과정에서는 글(작품)의 갈래와 형식, 작품 분석에 필요한 기초 용어에 관한 지식을 학습하고, 고급중학교 과정에서는 초급중학교에서 다루지 않은 글(작품)의 갈래와 형식에 관한 지식과 함께 국내외 주요 작가의 생애와 창작활동, 문학사, 문학 이론의 주요 용어에 대한 학습이 이뤄지도록 되어 있다.

이 밖에도 북한의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교육 내용, 그리고 교과서 집필 원칙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포괄적이며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12]

그러면 다음으로 고급중학교 『국어문학』 교과서를 살펴보도록 하자.

남한의 교사용 지도서에 해당되는 북한의 교수참고서에는 해당 과목의 성격에 대해 '머리말' 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어문학교수참고서』에서 제시한 <국어문학> 과목의 성격은 아래와 같다.

---

11) 대표적으로 강보선 · 김진숙 · 박수련, 「북한의 2013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국어교육연구』 62, 국어교육학회, 2016; 김진숙 외,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연구(Ⅰ)~(Ⅲ)』,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2017을 들 수 있다.

12) 자세한 내용은 박기범, 「북한 초급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 문학교육의 특성」, 『한국문학논총』 81, 한국문학회, 2019를 참고할 것.

www.kci.go.kr

고급중학교 《국어문학》 과목은 학생들에게 언어실천능력을 갖추어주고 다양한 형태의 글(작품)을 통하여 사상교양과 정서교양을 실현하는 학과목이다. -『국어문학참고서』 1쪽.

이와 같은 과목의 성격은 김정일의 다음과 같은 문학관에 따른 것이다.

"문학은 사람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과 생활인식의 힘있는 무기로 될뿐아니라 문화정서교양의 좋은 수단이 된다." -『김정일선집』 제16권, 111쪽.

그리고 『국어문학교수참고서』의 '<국어문학> 과목 교육의 특성'에서는 이 과목의 교재(제재)들이 대부분 문학작품임을 언급하며, 문학의 가치와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은 인간과 그의 생활을 매우 폭넓게 반영한다. 하나의 작품인 경우에도 거기에는 일정한 사회력사적시기의 여러 계급,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며 사회의 여러 부문, 여러 령역에 걸치는 그들의 다방면적인 활동과 생활이 펼쳐진다. -『국어문학교수참고서』 7쪽.

이는 김정일이 정리해서 발표한 『주체문학론』에 따른 북한의 문학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반영이론이라고 통칭하는 문학연구방법론이며, 루카치의 리얼리즘 이론이나 마르크스와 레닌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이론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3]

13) 북한에서는 1960년대까지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학이론에 입각한 보편적 원론 체제에 우리 작품을 예시했던 단계를 거쳐 김일성의 문예사상이 병행 서술하는 정도로 문학사가 기술되었는데, 1970년대 중반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이 주창된 이후에는 문학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예 김일성주의의 유일사상체계에 종속되어 버렸다. 그리고 1992년에는 김정일에 의해 『주체문학론』(조선로동당출판사)이 출판되었는데, 이 책은 당시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 속에서 북한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독자적인 방향을 모색하던 시기에, 북한의 독자적인 문학관을 사람 중심의 주체성과 민족성이라 강조하면서 이후

www.kci.go.kr

좀 더 자세히 『국어문학교수참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국어문학> 과목의 특성을 보면, 문학작품들이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생활현실을 매우 폭넓게 종합적으로 묘사반영하기 때문에 그것과 결부하여 진행되는 <국어문학> 과목 교육은 다음과 같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첫째로, 사상을 표현하는 수단인 말과 글에는 사람들의 일정한 계급적 이해관계와 지향이 반영되게 마련이므로 우리 말과 글을 통해 정치사상 교양을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선군시대 인간의 고상한 사상 도덕적 풍모를 형성시키기 위한 교육이다.

둘째로, 문학작품은 인간 생활을 생동한 예술적 화폭을 통하여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의 감정과 정서를 힘 있게 자극하므로 학생들에게 생활 현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주고 혁명적인 사상의식을 형성시켜 주면서 그것과의 통일 속에서 생활을 감정 정서적으로 체험하며 그에 대하여 옳은 감정 정서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해주는 교육이다.

셋째로, 어떤 글이든지 그것을 읽고 올바로 분석 파악할 수 있으며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쓸 줄 알게 되며 문학 창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예 활동도 잘하게 하기 위해 국어와 문학에 대한 지식과 실천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다.[14]

이처럼 북한의 고급중학교 <국어문학> 과목을 통한 교육은 궁극적으로 국가에 이바지하는 충성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정치사상 교양과 혁명적 정서를 키워주는 동시에 사회생활에 필요한 말과 글, 문학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충분히 체득시키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노동당과 국가, 김일성 일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강조하는 북한의 교육목표는 개인의 성장과 발달, 개성의 발현과 다양성의 존중을 강조하는 남한의 교육목표와는 큰 간극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의 문예정책과 이론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 역할을 하였다. 김성수, 「북한의 일제강점기 문학사 서술」, 민족문학사연구소 남북한문학사연구반 편, 『북한의 우리문학사 재인식』, 소명출판, 2014, 73-103면.

14) 『국어문학교수참고서』, 7-8면.

www.kci.go.kr

『국어문학교수참고서』의 ‘교수목적’과 ‘교수목표’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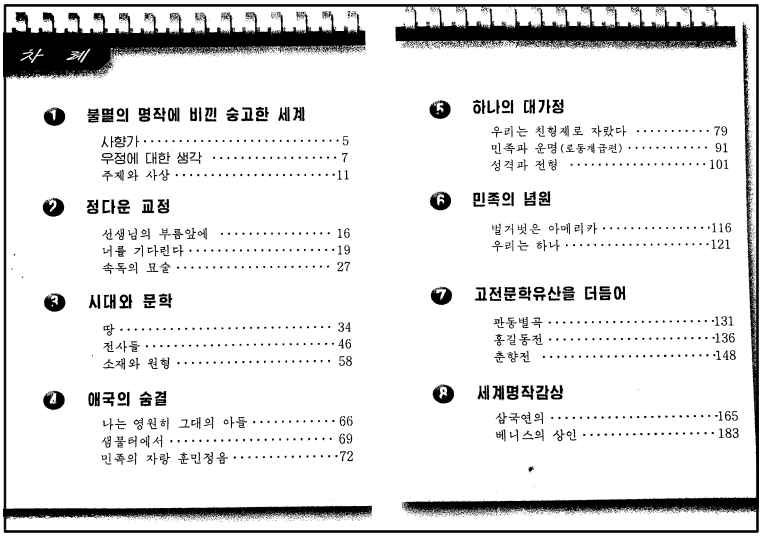
[표 2] 고급중학교 <국어문학>의 교수목적과 교수목표

교수목적	교수목표
여러 가지 문체의 국어문학교재들의 취급을 통하여 학생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선군혁명위업을 수행해나가는데 필요한 언어능력과 함께 문학일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줌으로써 그들을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강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혁명인재로 준비시키는데 있다.	우리말과 글에 대한 일반기초지식과 그 활용능력을 완성하고 론리와 론법에 맞게 말을 하고 글을 쓰는 능력을 갖추어주며 주체의 문예관에 기초하여 문학작품을 감상하고 분석평가하며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시켜주는 것이다.(1학년)

북한의 고급중학교 <국어문학> 과목의 교수목적은 ‘선군혁명위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능력과 문학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길러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충직한 강성국가건설의 혁명인재’로 준비시킨다는 국가중심주의적 교육이념에 경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확하고 효과적인 언어사용 능력을 갖추고, 높은 수준의 문학작품의 수용과 생산 능력을 형성하고자 하는 북한의 교수목표는 언뜻 보면 남한의 그것과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특별히 ‘일반기초지식’의 완성과 ‘주체적 문예관’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점은 남한과 다른 부분이었다. 이 교수목표는 교육과정 상에서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으로 제시될 것인데, 이를 검토해 보면, 분명히 이전과 달리 정치적 요소는 약화되고, 문학 지식, 문학 감상 능력, 문학을 통한 언어 활용 능력 등을 키우는 것으로 어느 정도 변화되었다는 점에서 남북한 사이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하게 된다.

그럼, 이제부터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먼저 고급중학교 『국어문학』 교과서의 단원 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www.kci.go.kr



차 례

❶ 불멸의 명작에 비낀 숭고한 세계
사할가 ····· 5
우정에 대한 생각 ····· 7
주제와 사상 ····· 11

❷ 정다운 교정
선생님의 부름앞에 ····· 16
너를 기다린다 ····· 19
속독의 묘술 ····· 27

❸ 시대와 문학
땅 ····· 34
전사들 ····· 46
소재와 원형 ····· 58

❹ 애국의 숨결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 66
샘물터에서 ····· 69
민족의 자랑 훈민정음 ·····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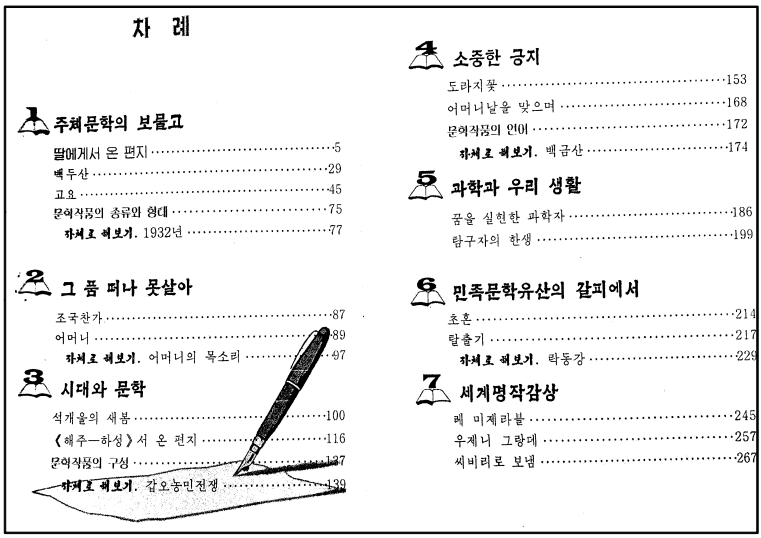
❺ 하나의 대가정
우리는 친형제로 자랐다 ····· 79
민족과 운명(로동계급편) ····· 91
성격과 전형 ····· 101

❻ 민족의 념원
벌거벗은 아메리카 ····· 116
우리는 하나 ····· 121

❼ 고전문학유산을 더듬어
판동벌곡 ····· 131
홍길동전 ····· 136
춘향전 ····· 148

❽ 세계명작감상
삼국연의 ····· 165
베니스의 상인 ····· 183

[그림 1] 『국어문학』 1학년 교과서 차례



차 례

1 주체문학의 보물고
딸에게서 온 편지 ····· 5
백두산 ····· 29
고요 ····· 45
문학작품의 종류와 형대 ····· 75
자체로 해보기. 1932년 ····· 77

2 그 품 떠나 못살아
조국찬가 ····· 87
어머니 ····· 89
자체로 해보기. 어머니의 목소리 ····· 97

3 시대와 문학
석개울의 새봄 ····· 100
《해주—하성》서 온 편지 ····· 116
문학작품의 구성 ····· 127
자체로 해보기. 갑오농민전쟁 ····· 139

4 소중한 긍지
도라지꽃 ····· 153
어머니날을 맞으며 ····· 168
문학작품의 언어 ····· 172
자체로 해보기. 백금산 ····· 174

5 과학과 우리 생활
꿈을 실현한 과학자 ····· 186
탐구자의 한생 ····· 199

6 민족문학유산의 갈피에서
초혼 ····· 214
탈출기 ····· 217
자체로 해보기. 락동강 ····· 229

7 세계명작감상
레 미제라블 ····· 245
우제니 그랑데 ····· 257
씨비리로 보냄 ····· 267

[그림 2] 『국어문학』 2학년 교과서 차례

www.kci.go.kr

1년 동안 활용되는 교과서는 1학년의 경우 8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90시간(주당 3시간) 동안 수업하도록 하였고, 2학년의 경우 7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56시간(주당 2시간) 동안 수업하도록 하였다.[15] 그런데 교과서의 분량은 표지를 제외하고 1학년 교과서가 191쪽, 2학년 교과서가 271쪽으로 되어 있어서 수업 시수와는 반대로 1학년보다 2학년의 교과서가 더 두껍다.

단원은 주제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첫 단원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작품을 '불멸의 명작', '주체문학의 보물고'라는 이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는 1학년에 처음 경험하는 새로운 '교정'을 단원명으로 설정하였고, '조국', '애국', '가정', '민족', '과학'을 중심어로 하는 단원을 설정하였다. 또한 '시대와 문학', '문학유산', '세계명작'은 두 개 학년 모두에 걸쳐 단원으로 설정되어 있었다.[16]

그리고 차례를 보면, 단원명 아래에는 2~5개의 하위 항목이 시작 쪽수와 함께 제시되어 있는데, 1학년의 경우에는 단원에서 다루는 각 제재의 제목과 문학이론에 관한 설명 글의 제목이 같은 글자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2학년의 경우에는 제재의 제목과 문학이론에 관한 설명 글의 제목을 다른 글자 모양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또한 1학년에는 '자체로 해보기' 활동이 차례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2학년에는 차례에 하위 항목으로 단원

15) 학년별 수업 시수는 『국어문학교수참고서』의 '교수진도표'와 조정아 외(2015: 34)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수업 시수는 초급중학교의 국어 수업이 주당 5시간씩 매 학년마다 170시간 동안 하도록 배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축소된 것이다. 이는 고급중학교에서 초급중학교에는 없던 한문 과목을 주당 1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는 데다가 붉은청년근위대훈련, 나무심기, 생산노동 등 수업 이외의 다른 활동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수업 일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16) 이에 비해 남한의 『문학』 교과서의 단원명은 다분히 교육과정상의 내용 요소와 매우 흡사하게 되어 있다. 이는 교과서 검정 제도로 말미암아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단원의 편성과 단원명은 교육의 관점과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남한의 획일적인 목표(교육과정) 중심의 단원 체제는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홍원, 「북한 문학교육을 통한 문학교육론의 투시와 성찰-북한의 2013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64,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362-368면 참조할 것.

www.kci.go.kr

말미에 별도의 글자 모양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이는 교과서 개발과 발행에 1년의 시차가 있는 만큼 먼저 발행된 1학년 교과서에서 개선된 점이라 볼 수 있다.

각 단원의 구성 체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단원명이 제시된 첫 쪽에는 단원의 내용과 연관된 그림을 배경으로 하면서 단원의 목표와 주요 제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도입 글로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문학작품이 제재로 제시되는데, 여기도 제재와 관련된 다양한 그림과 사진이 삽화로 함께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제재의 마지막에는 발표 연도가 괄호로 제시되며, 갈래에 대한 설명과 작가 소개도 함께 제시된다.

그 다음으로는 '사색과 실천'이란 학습활동이 2~4가지 제시되는데, 문학이론에 관한 설명 글에는 없고 문학작품 제재에만 딸려 있다. 이들 활동은 먼저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필수적인 활동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 목표와 관련된 활동을 말하고 토의하며 글 짓는 다양한 언어활동을 '실천'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남한의 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언어 사용 기능의 통합 활동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 뒤로는 '자체로 해보기' 활동이 제시되는데, 이는 새로운 문학작품을 제시하여 앞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 스스로 심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습활동이다. 여기서는 새로운 작품뿐만 아니라 활동의 방향과 안내를 '참고'할 만한 자료도 함께 제시된다.

이상으로 하나의 대단원이 마치면 '문법실천'이라는 활동이 마지막으로 제시되는데, 이는 이전 시기의 교육과정에서 <문법>과 <문학>으로 별도의 과목으로 되어 있던 데에서 이번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국어문학>으로 합쳐지면서 '문법' 수업을 한 교과서에서 진행해야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설정된 부분이다.

이처럼 새로운 북한 교과서는 이전 교과서에 비해 교육적으로 더욱 실질적이며 체계적인 단원 구성을 취하고자 노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www.kci.go.kr

3. 『국어문학』 교과서 현대소설/영화 단원의 제재와 교육 내용

북한의 교과서에 수록되는 제재를 선정할 때의 유의점은 교육과정의 '교과서 집필에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그림 3]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17]

① 기본글(작품)교재는
—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교양, 주체사상원리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선군사상교양, 사회주의도덕교양 등 정치사상교양과 력사, 지리, 명인, 자연현상과 과학적 내용 등 여러 분야의 생활주제의 글들로 구성한다.
특히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력사를 반영한 작품들과 위대성을 반영한 작품들, 그분들께서 몸소 창작하신 작품들로 우선 구성하며 사회의 성원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계적으로 이름난 대표적인 작가들과 명작들을 일정하게 포함시키도록 한다.
— 글(작품)형태는 수기, 수필, 전기, 서정시, 희곡, 웅변글, 장(중)편소설, 신문글, 단상, 실기(실화), 과학환상소설(배운 지식의 범위 안에서)등 문학적이며 론리적인 글들과 일부 생활적인 글들로 구성하며 해당 학년에 지적된 글(작품)형태외에 이전 학년의 글(작품)형태들도 적절하게 배합하도록 한다.
— 글(작품)교재의 소재선택과 내용서술에서 다른 학과목들과의 횡적 련관을 철저히 보장하여 지식적 내용습득에서 학생들의 리해에 불균형을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글(작품)교재의 서술에서 어려운 말, 한자어표현을 철저히 없애며 학생들이 리해하기 쉽고 흥미를 돋굴 수 있도록 재미있고 형상적인 말들로 표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교재내용구성에서 학생들의 능동적 사고계발에 의한 지식습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기계적인 암기식학습, 고정격식화된 틀에 맞추는 학습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산문과 운문의 비률은 7:3으로 한다.

[그림 3] 북한의 교과서 집필에서 지켜야 할 원칙

이를 보면, 북한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철저히 '백두산절세위인'인 김일성 일가를 추종하며, 그들이 창작했거나 그들의 사상과 활동을 반영한 작품들을 교육 제재로 가장 중시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글(작품)형태, 즉 문학의 갈래가 다양하면

17) 교육위원회,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 2013; 최홍원, 「동질성과 이질성의 길항과 통일 문학교육의 도정-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해 본 통일 문학교육의 방향과 과제」, 『문학교육학』 62,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58면 재인용.

www.kci.go.kr

서도 생활 밀착형의 글인 수기, 수필, 전기, 웅변글, 신문글, 단상, 실기(실화)를 중시하며, 과학환상소설을 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어려운 말과 한자어 표현을 '철저히' 없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돋울 수 있도록 강조한 점도 주목된다.

그러면 이제 고급중학교 『국어문학』 1, 2학년 교과서에 어떤 현대소설과 영화(텔레비전)문학 제재가 수록되었으며, 이를 통한 교수-학습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현대소설과 영화 제재를 활용한 단원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국어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소설/영화 제재와 교수-학습 내용

학년	단원	작품 명	작가	갈래	발표 연도	분량	주제	학습활동 (사색과 실천)	관련 문학지식	통합 언어 활동
1	2	너를 기다린다	박현	중편소설	1987	7	미래의 과학자로 믿음직하게 준비해가는 학생소년들의 모습	1. 등장인물(세 소년)의 형상 분석하기 -인물의 희망, 성격과 특징, 생활세부 2. 작품의 여러 세부(요소)를 통하여 사상(내용) 분석하기 -박사선생님의 말에 담긴 뜻, 인물의 행위와 심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말하기 3. 과학기술시대, 정보화시대에 사는 자기의 희망 말하기	인물 형상	-말하기
	3	땅	이기영	장편소설	1949	10	토지개혁으로 인해 지주의 착취로부터 해방된 농민	1. 주인공 곽바위의 형상 분석하기 -곽바위의 해방 전 생활에 대해 말하기, 해방 후 곽바위의 성격과 운명의 변화 말하기 2. 자료 듣기를 통해 주인공과 원형의 관계 파악하기 -곽바위의 원형 찾기, 원형과 곽바위의 형상의 차이점 말하기 3. 땅과 관련된 성구속담 찾아 뜻 설명하기 4. '땅과 농민', '땅과 우리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땅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소재와 원형 1인칭 소설	-심리 묘사 글쓰기 -말하기

www.kci.go.kr

							느낌 말하기			
		전사들	석윤기	중편소설	1960	9	조국해방전쟁 시기 인민군 용사들의 영웅적인 활약상	1. 등장인물의 형상 분석하기 -중대장 박대우, 전사 곽홍규, 련대장 강표 2. 소재(꽈리)의 반복(패턴)이 갖는 소설 형상적 의미와 기능 파악하기 -특정 세부(장면)에서 갈등하는 두 인물의 견해의 차이 말하기, 작품의 여러 대목에서 나오는 세부들의 의미 설명하기 3. 자신의 견해 말하기 -강표의 심리를 반영한 대목을 찾고 이 심리묘사가 없다면 어떠할지 말하기, 박대우가 강표에게 한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기 4. 심리묘사글쓰기 -초급중학교 졸업 때 동무들과 헤어질 때, 고급중학교 입학 후 첫 수업을 받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을 때		-주장 말하기 -심리 묘사 글쓰기
	5	우리는 친형제로 자랐다	로정법	단편소설	1976	10	전쟁으로 희생된 애국열사의 유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	1. 인물(할머니)의 성격 분석하기 -할머니의 여러 가지 말과 행동으로부터 인물의 성격 도출하기 2. 1인칭 소설의 특징 파악하기 -시점을 '나'에서 '그'로 바꿔 설정하면 어떨지 말해 보기, 등장인물 '나'를 외손자가 아니라 다른 아이와 같은 전쟁고아로 설정하면 어떨지 말해 보기 3. 우리 시대의 전형들에 대한 느낌 말하기 -한현경 학생(2012년 6월 수해 현장에서 김정은의 초상화를 목숨을 바쳐 지킴)에 대해 말해 보기, 우리 학교,		-느낌 말하기

www.kci.go.kr

								군, 도(시)가 낳은 시대의 전형(학생)에 대해 말해 보기		
		민족과 운명 (로동계급편)	리춘구 리덕윤 박청룡 홍순복	영화문학	1994 ~ 1995	6.5	천리마작업반 운동 시기에 벌어진 한 용해공 일가의 활약상	1. 주인공 강태관의 성격 파악하기 -강태섭, 한송옥, 진응산, 사옥비와의 관계 속에서 강태관의 성격 말하기 2. 쇠물철학(고향,출신,인생경력이 상이한 사람들이 한 식솔로 되게 함)이 무엇이며, 작품에서 쇠물철학이 나오는 구절을 찾아보기 3. 영화 장면을 형상화하면서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조별로 장면을 나눠 배역을 분담하기, 맡은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여 연기로 나타내기, 맡은 역을 수행하면서 가졌던 심리와 감정, 행동을 되새겨보면서 인물의 성격 말해 보기 4. 그림('부탁을 남기고')를 보고 대화글쓰기 -그림을 보고 쓴 본보기글(부상병과 간호원의 대화)을 읽기 -집단체조의 배경대 훈련을 하는 학생들의 휴식시간을 형상한 그림을 관찰하고 재미있는 대화글쓰기, 여러 가지 장면 속 학생들을 설정하여 대화글쓰기		-대화글쓰기
		길동무들	김병훈	단편소설	1960	9.5	천리마시대의 전형인 오명숙의 활약상	1. '나'의 시점에서 본 오명숙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인물의 성격적 특징을 파악하기		-분석발표하기
2	1	고요	리종렬	단편소설	1983	28 전문	김일성의 안녕과 건강을 걱정하는 김정일의 충정	1. 작품의 주제와 사상을 밝히기 -김일성이 탄 특별열차가 산간 역에 갑자기 멈추게 된 이유와 그 사건에 어린 김정일의 충정에 대해 말하기 -만곡역 폐쇄 문제에 대한 천상수와 서상만의 대조되는 견해와 관점, 이 문제에 대한 김정일의 인식 파악하기	문학작품의 종류와 형태	-인물묘사하기

www.kci.go.kr

								-김일성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고요와 만곡역 폐쇄 문제의 관련성 찾기 2. 출표원 처녀가 만곡역에 배치되어 천상수 역장과 감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마지막 장면을 상상하면서 두 인물의 초상, 행동, 심리 중 하나를 묘사해 보기		
		1932년	권정웅	장편소설	1972	8	항일 투쟁 시 적들의 포위 속에서도 출로를 찾아낸 김일성의 지략	1. 적들의 포위 속에서 산판을 손금 보듯 안다는 마 영감도 생각하지 못했던 출로를 김일성이 찾아낸 비결이 무엇인지 밝혀 보기		
	3	석개울의 새봄	천세봉	장편소설	1958	12	농촌 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	1. 작품(전문)에 설정된 인물 관계와 사건에 대해 말하기 -인물 관계 그림을 그리고 농업협동화 운동에서 계급정책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말하기 -등장인물들의 개성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인상 깊은 사건 찾아보기 2. 작품(선문)에서 예술적 흥미를 살리기 위해 이야기를 어떻게 꾸몄는지 밝혀 보기. 이야기가 독자들의 기대와 예상을 뒤집으며 어떻게 흘러갔는지 말하기 -탁수일이 소문제를 제기하는 대목에서; 박병천이 리인수와 권치도 등이 조합을 따로 조직하려는 데 대해 발설하는 대목에서 -이 두 대목 중 한 대목을 생략하고 이야기를 엮어도 예술적 흥미를 보장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작품(전문)에 그려진 안개에 대한 묘사들을 놓고 작가 천세봉의 개성적인 문체에 대해 밝혀 보기 ※ 다섯 군데의 안개 묘사 부분을 제시	문학작품의 구성	-말하기

www.kci.go.kr

							함			
		<해주-하성>서 온 편지	김병훈	단편소설	1960	19	철도건설에서 집단적 혁신으로 모범을 보인 청년 건설자들의 활약상	1. '서칠성-명희'의 인물관계를 통해 작품의 주제와 사상을 밝혀 보기 -서칠성과 명희의 이상을 대비해 보기 -명희가 서칠성의 노력과 정신에 매혹되는 과정의 이야기와 달리 두 사람이 자동버럭운반기의 창안과 관련하여 기술 문제를 놓고 서로 언쟁을 벌리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구성해 보기. 이렇게 바꿨을 때 주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해 보기 2. 지문의 한 대목을 선정해서 극문학으로 각색해 보면서 천리마시대 인간들이 지닌 고상한 사상정신적 풍모를 파악해 보기		-각색하기
		갑오농민전쟁	박태원	장편소설	1977	10	우리 인민들의 반봉건 반침략 투쟁의 역사	1. 작품에서 당시의 사회정치적 환경과 민족적 풍습, 생활세태 등을 생동하게 나타낸 어휘를 찾고 그 뜻을 알아보기 2. 갑오농민전쟁을 반영한 민요 <가보세>의 가사에 담긴 뜻 음미하기	역사소설	
	4	도라지꽃	리춘구	영화문학	1987	12	고향을 위한 산골 처녀의 희생과 헌신	1. 송림과 원봉의 고향에 대한 관점, 걸어온 길, 삶의 종착점 비교하여 파악하기 -두견산 수림지 장면과 공원 장면에서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말해 보기 -주인공 진송림과 박원봉의 대조적인 성격을 도라지꽃과 빠꾸기의 세부를 통해 밝혀 보기 -고향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담긴 진송림의 대사에 담긴 뜻을 새겨보고 고향에 대한 자기들의 체험에 기초하여 명대사를 지어보기 ※진송림의 대사 일곱 개를 제시함 2. 이야기줄거리 혹은 장면 써보기	영화문학 문학작품의 언어	-말하기 -명대사 짓기 -줄거리나 장면 쓰기

www.kci.go.kr

								-송화를 박원봉의 동생으로 설정한 이야기줄거리 -진송림이 고향을 떠나는 박원봉의 앞을 막아서며 밤골 전망도를 짓밟고 가라고 하는 장면 -영웅이 되어 귀향하는 군인 길복과 아버지의 수치를 씻기 위해 귀향하는 박세룡이 열차에서 만나는 장면		
		백금산	현백학 (원작: 김문창)	텔레비전 극문학 (원작:장편소설)	1995	9	대중적 혁신을 이룩한 용양광산 7호 굴착기 소대원들의 활약상	1. 작품의 각 장면의 형상 과제를 파악하기 -원작 소설 대목과 달리 소대장이 자기에게 차려진 닭곰을 류혁에게 주는 것으로 각색한다면 그 장면을 어떻게 구성하며, 그 장면의 형상 과제는 무엇인가 -'철훈의 집' 장면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 장면은 왜 설정되었는가 -함순화에 대한 류혁의 회상 장면 각색해 보기; 한 장면에서 두 사람이 대조되는 형상을 영화에서는 어떤 수법으로 표현하겠는가 2. 함순화에 대한 류혁의 회상 장면에 대해 더 깊이 파악해 보기 -이 장면에서 필요한 화면 수; 매 화면에 소요된 시간; 매 화면들이 누구의 시점에서 형상되었는가		-말하기
	5	탐구자의 한생	리규택	장편 실화소설	1989	13	세계적인 유전학자 계응상 선생의 생애와 업적	1. (앞에 수록된) 실화 '꿈을 실현한 과학자'(합성섬유 비날론을 만든 리승기 박사)와 구성 조직 비교하기 2. 김일성이 계응상의 정치적 생명과 과학적 신념을 지켜준 것에 대해 말해 보기 -계응상을 반동학자라고 주장한 배운권의 논거는 무엇인가	실화	-듣기 -토론하기

www.kci.go.kr

								-배운권의 주장을 반박할 논거를 준비하여 논박해 보기 -배운권의 논증을 반박한 김일성의 신념 속에 간직된 진리의 절대적 기준은 무엇인가		
	6	탈출기	최서해	단편소설	1925	10 전문	일제강점기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저항의지	1. 작품의 주제와 사상을 파악하기 -주인공 박군이 집을 떠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김군과 박군의 편지를 대비하기 2. 박군의 심리가 집중적으로 드러난 세부를 찾아보기 3. 작품의 제한성 말해 보기	신경향파 문학	-말하기
		낙동강	조명희	단편소설	1927	13	일제에 항거하는 청년사회운동자와 민중들의 기세	1. 주인공 박성운의 성격 파악하기 -김소월의 '초혼'의 서정적 주인공과 박성운의 성격 대조하기 -'탈출기'의 박군과 '낙동강'의 박성운은 모두 일제식민지 통치에 반항하는 인물들이지만, 두 인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2. 작품의 제한성 말해 보기	사회주의 적사실주의 문학	-말하기
	7	레 미제라블	빅토르 위고	장편소설	1862	11	초기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사랑과 희생의 인도주의	1. 장 발장과 코제트는 당대 사회의 어떤 계급을 대표하고 있으며 그들이 겪는 불행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2. 작품에서 낭만주의 문학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인공의 형상을 중심으로 토론해 보기	낭만주의 문학	-토론하기
		우제니 그랑데 (외제니 그랑데)	오노레 드 발자크	장편소설	1833	9.5	초기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부정적인 인간상	1. 그랑데의 인색하고 수전노적 본성이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말해 보기 2. 그랑데의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딸 우제니의 일생은 어떠했는지, 그들의 형상을 통해 작품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말해 보기		-말하기

www.kci.go.kr

[표 3]을 보면, 1학년에서는 총 8개 단원 중 3개 단원에서 6개의 현대소설 작품이 제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2학년에서는 총 7개 단원 중 6개 단원에서 12개의 현대소설과 영화(텔레비전)문학이 제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로 보아 문학 제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을 하는 고급중학교 과정 안에서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소설의 비중이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개 학년의 교과서에 수록된 총 18작품을 발표 연대 면에서 살펴보면, 1980년대 작품이 4편으로 가장 많았고, 1960년대와 1970년대가 3편씩이었으며, 1920년대와 1990년대가 2편씩이었다. 기타 1830년대, 1860년대, 1940년대, 1950년대가 1편씩이었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시기에 대한 소설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민족문학유산' 관련 단원에서는 1920년대 소설들을, '세계명작감상' 단원에서는 1830~1860년대 프랑스의 초기자본주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들을 제재로 활용하고 있다.[18]

길이 유형 면에서 남한의 소설 제재 수록 양상과 비교했을 때, 가장 특이한 점은 수록 분량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19] 특히 단편소설의 경우에는 무려 28쪽이나 되는 작품의 전문을 수록하는 경우도 있으며, 중편과 장편의 경우에도 평균 11.5쪽이나 되는 분량으로 작품의 일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의 전체 분량 면에서 남한과 북한이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두 배나 많은 분량으로 소설 지문을 제시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는 분명히 주목되는 점이다.

그런데 수록 작품의 작가들은 거의가 남성이다.[20] 이런 편향적인 결과를 볼 때, 북한에서는 제재 선정 시 작가의 성별에 대한 안배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짐작된다.

---

18) 이러한 작품 선정은 앞서 각주 13)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문학이론과 정책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주체문예이론'과 『주체문학론』의 직접적인 영향 때문이다.

19) 남한의 검인정 『문학』 교과서에서 현대소설 제재의 수록 분량은 2009, 2012, 2015 교육과정 시기 각각 5.2쪽, 4.1쪽, 4.8쪽이었다. 박기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현대소설 제재 분석」, 『국어문학』 71, 국어문학회, 2019, 553면.

20) 영화문학 '민족과 운명'의 여러 작가 중 '홍순복'만이 여성으로 추정된다.

www.kci.go.kr

수록된 작품들의 주제는 거의 모든 작품이 김일성 일가와 조국에 대한 충성으로 수렴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김일성의 건강을 걱정하는 김정일의 충정을 그린 '고요'와 김일성의 항일 투쟁을 배경으로 한 '1932년'은 그동안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인민 교화에 활용해 온 작품들이다. 그 다음으로는 토지개혁, 조국해방전쟁, 천리마작업반운동, 농촌경제의 개조, 철도건설, 광산개발 등의 시대적 사건들을 배경으로 평범한 인물이 사회주의적 영웅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과 그 활약상을 그린 작품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땅', '전사들', '우리는 친형제로 자랐다', '민족과 운명', '길동무들', '석개울의 새봄', '<해주-하성>서 온 편지', '백금산' 등이 바로 그러한 작품들이다.

한편으로는 갑오농민전쟁이나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민중들의 힘겨운 삶과 저항을 그린 '갑오농민전쟁', '탈출기', '낙동강'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레 미제라블'과 '외제니 그랑데'와 같은 외국 문학작품과 함께 남한에서도 잘 알려진 작품들이다.

이 밖에는 계응상의 생애와 업적을 다룬 '탐구자의 한생'이 실화소설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었으며, 미래의 과학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그린 '너를 기다린다'라는 작품도 있었는데, 이러한 작품 선정은 북한이 주창하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과 실용과 근면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또한 도시로 가기보다 산골 고향을 살 만한 곳으로 가꿔 나가는 희생과 헌신을 그린 영화 '도라지꽃'과 같은 제재는 그나마 정치적, 이념적 성향을 비교적 덜 띄면서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겪을 만한 소재를 바탕으로 인류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어서 주목되었다.

한편, 북한에서는 1967년의 주체사상 확립 이후 공식 역사를 대폭 수정하였는데, 그 결과로 1866년의 병인양요와 1871년의 신미양요를 '제국주의 외세 침략에 대항한 인민대중의 자주적 투쟁'이므로 이를 근대사의 기점으로 삼아 왔다.[21] 따라서 박태원의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 중에서도 교과서에

21) 김성수, 「북한의 일제강점기 문학사 서술」, 민족문학사연구소 남북한문학사연구반 편, 『북한의 우리문학사 재인식』, 소명출판, 2014, 92면.

www.kci.go.kr

수록된 부분은 '제5장 3. 척화비'의 일부로 '척왜척양'을 주창하는 동학도과 전봉준의 모습을 중심으로 두 양요의 의의를 서술하는 내용을 제시한 것도 이러한 역사적 인식에 바탕을 둔 지문 선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계 명작 소설을 공부하는 단원에서는 '레 미제라블'과 '우제니 그랑데'가 활용되고 있는데, 두 작품 모두 남한에도 잘 알려진 작품이어서 주목되었다. 다만 단원의 소개 글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온갖 사기와 협잡이 판을 치고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착취사회의 반동적본질"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들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품 수용이 정치교양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레 미제라블'을 통한 학습활동은 낭만주의 창작 방법의 의의와 한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전개되고 있다.[22] 그리고 '우제니 그랑데'가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의 대표적 작품이라고 소개하면서 초기자본주의 시대인 당대의 어두운 측면을 파헤치는 학습활동을 전개하고 있다.[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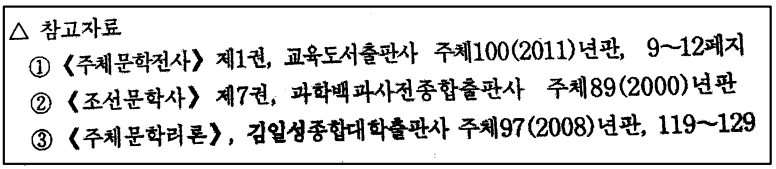
이상으로 『국어문학』에 수록된 문학작품을 살펴보았는데, 북한에서 교육 제재로 활용할 만큼 문학사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작품들은 1991년부터 2012년까지 16권의 총서로 간행된 『조선문학사』(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사회과학출판사)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문학 이론에 대해서는 『주체문학리론』(김일성종합대학 조선문학과용)의 내용을 참고하여 고급중학교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그림 4]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

22) 『국어문학』 교과서에서는 '작품소개'를 통해 이 작품이 자비심과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통하여 자본주의 현실에 존재하는 사회악과 불행을 없앨 수 있으리라는 세간의 작품평을 소개하면서도, 이것은 자본주의 제도의 본질을 옳게 인식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결함이었다고 덧붙이고 있다. 『국어문학』 2학년, 245면.

23) 『국어문학』 교과서에서는 '작가소개'를 통해 발자크는 피착취계급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동정하면서도 사회혁명 대신에 그들에 대한 후견을 설교하고 귀족계급에게 동정을 표시하는 등 시대적, 계급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으나, 당대 프랑스 사회의 현실 모순을 예리하게 폭로한 진보적 측면이 있으므로 유럽의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어문학』 2학년, 266면.

www.kci.go.kr


△ 참고자료
① 《주체문학전사》 제1권, 교육도서출판사 주체100(2011)년판, 9~12페지
② 《조선문학사》 제7권,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주체89(2000)년판
③ 《주체문학리론》,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97(2008)년판, 119~129

[그림 4] 『국어문학교수참고서』의 참고자료 중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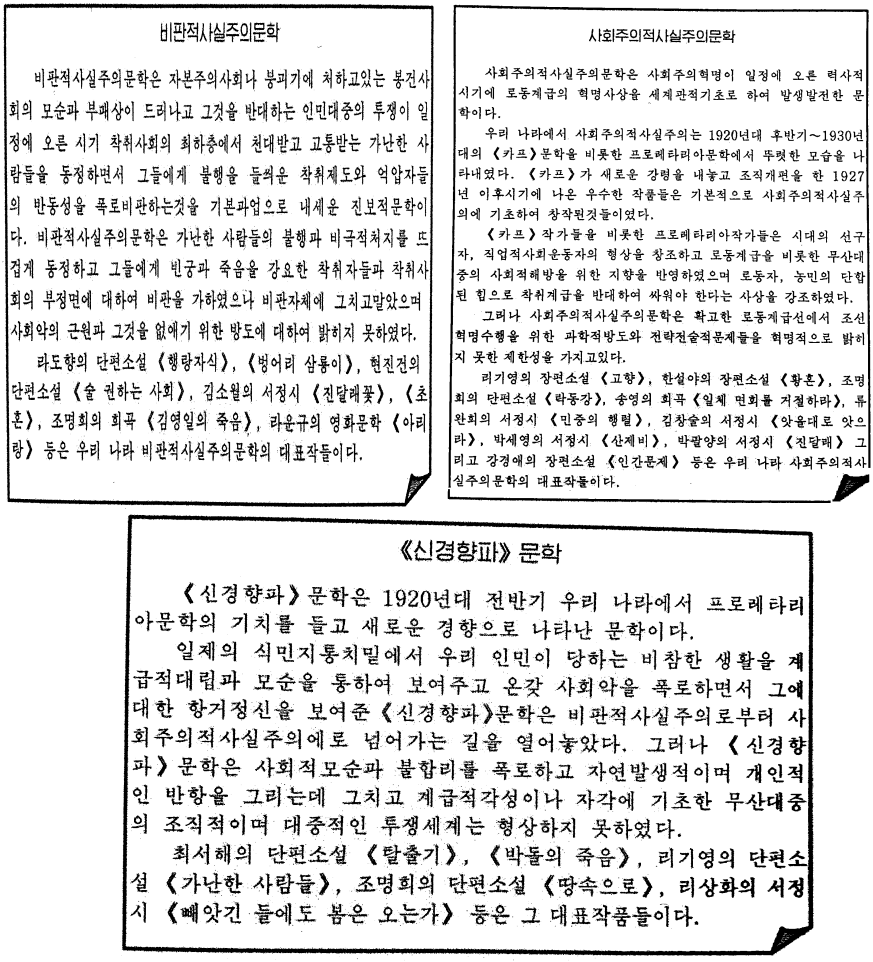
한편, 학습 내용 요소와 관련하여 북한의 문학교육에서는 작품의 갈래(장르)에 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국어문학』 2학년 교과서 1단원에서는 '문학작품의 종류와 형태'에 관한 설명 글이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문학작품의 종류란 작품에서 생활을 어떤 방식으로 그리는가 하는 특성에 의하여 갈라지는 작품의 갈래를 말한다."고 정의한 뒤에 서사적, 서정적, 극적 묘사 방식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문학의 기본형태는 소설, 시, 극문학이다."라고 3분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소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소설은 묘사를 기본으로 하여 인간과 그의 생활을 이야기식으로 보여주는 문학의 한 형태이다.
> 소설은 묘사와 대사, 주정토로와 설명과 같은 문학에 쓰이는 언어형상수단을 종합적으로 리용하며 생활을 이야기식으로 펼친다는데 그 특성이 있다.
> 소설은 그 규모에 따라 단편소설, 중편소설, 장편소설 등으로 나뉘여지고 주제사상적내용과 생활소재에 따라 실화소설, 지능소설, 환상소설, 력사소설, 추리소설 등으로 나뉘여지며 구성형식과 표현수법에 따라 서한체소설, 일기체소설, 운문소설, 1인칭소설 등으로 나뉘여진다. -『국어문학』 2학년, 76쪽.

또한 문학 창작 방법이나 문예사조에 관한 지식도 [그림 5]와 같이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24]

24) [그림 5]의 설명 내용도 김정일의 『주체문학론』과 『조선문학사 9』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진술되었다. 특히, 신경향파 문학이 비판적 사실주의로부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로 넘어가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의의와, 우리의 '카프' 문학

www.kci.go.kr



[그림 5] 『국어문학』의 문예사조에 대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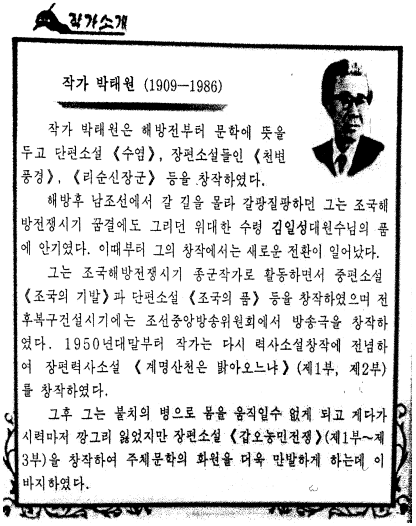
이뿐만 아니라 북한 교과서에서는 작가와 작가의 문학적 업적에 관한 내용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점 역시 문학적 지식을 중시하는 북한 문학

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기초한 점이라는 설명은 그 이전의 문학사 저술에서는 언급되지 않거나 축소되었던 내용이다.

www.kci.go.kr

교육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의 작가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나 조선작가동맹 등의 작가 단체에서 요직을 지낸 인물이거나 '김일성 훈장 수훈자', '김일성상 계관인', '인민상 계관인', '노력영웅' 등의 칭호를 받은 작가들이다. 그만큼 북한의 정치 체제와 문학 지형 형성에 크게 이바지했던 인물들의 작품을 선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림 6]에서 보듯이 작가의 해방 전 업적에 대해서는 소략하게 다루고 있다. 해방 전에 이룩한 문학적 업적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단 이후 북한에서의 활동과 업적 위주로 작가를 소개하고 있는 점은 남북한으로 분단되기 전의 문학적 유산을 남북한의 학생들이 다 같이 공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주는 부분이다.


작가소개

작가 박태원 (1909—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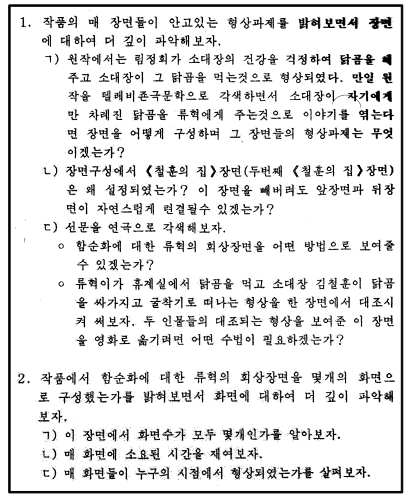
작가 박태원은 해방전부터 문학에 뜻을 두고 단편소설 《수염》, 장편소설들인 《천변풍경》, 《리순신장군》 등을 창작하였다.

해방후 남조선에서 갈 길을 몰라 갈팡질팡하던 그는 조국해방전쟁시기 굶결에도 그리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품에 안기였다. 이때부터 그의 창작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그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종군작가로 활동하면서 중편소설 《조국의 기발》과 단편소설 《조국의 품》 등을 창작하였으며 전후복구건설시기에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서 방송극을 창작하였다. 1950년대말부터 작가는 다시 력사소설창작에 전념하여 장편력사소설 《계명산천은 밝아오느냐》(제1부, 제2부)를 창작하였다.

그후 그는 불치의 병으로 몸을 움직일수 없게 되고 게다가 시력마저 깡그리 잃었지만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제1부~제3부)을 창작하여 주체문학의 화원을 더욱 만발하게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림 6] 『국어문학』의 작가에 대한 설명


1. 작품의 매 장면들이 안고있는 형상과제를 **밝혀보면서 장면**에 대하여 더 깊이 파악해보자.
   ㄱ) 원작에서는 림정희가 소대장의 건강을 걱정하여 **닭곰을 해** 주고 소대장이 그 닭곰을 먹는것으로 형상되였다. **만일 원** 작을 텔레비존극문학으로 각색하면서 소대장이—**자기에게** 만 차례진 닭곰을 류혁에게 주는것으로 이야기를 **엮는다**면 장면을 어떻게 구성하며 그 장면들의 형상과제는 무엇이겠는가?
   ㄴ) 장면구성에서 《철훈의 집》장면(두번째 《철훈의 집》장면)은 왜 설정되였는가? 이 장면을 빼버려도 앞장면과 뒤장면이 자연스럽게 련결될수 있겠는가?
   ㄷ) 선문을 연극으로 각색해보자.
   ○ 함순화에 대한 류혁의 회상장면을 어떤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겠는가?
   ○ 류혁이가 휴게실에서 닭곰을 먹고 소대장 김철훈이 닭곰을 싸가지고 굴착기로 떠나는 형상을 한 장면에서 대조시켜 써보자. 두 인물들의 대조되는 형상을 보여준 이 장면을 영화로 옮기려면 어떤 수법이 필요하겠는가?

2. 작품에서 함순화에 대한 류혁의 회상장면을 몇개의 화면으로 구성했는가를 밝혀보면서 화면에 대하여 더 깊이 파악해보자.
   ㄱ) 이 장면에서 화면수가 모두 몇개인가를 알아보자.
   ㄴ) 매 화면에 소요된 시간을 재여보자.
   ㄷ) 매 화면들이 누구의 시점에서 형상되였는가를 살펴보자.

[그림 7] 『국어문학』의 영화 관련 학습 내용

한편, 남한의 교과서에도 작가 소개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북한 교과서의 경우에는 남한에 비해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발표 연대를 작품의 끝에 반드시 표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남한의 경우에

www.kci.go.kr

는 검정 교과서마다 달라서 작품 발표 연대를 아예 밝히지 않는 교과서도 있기 때문이다. 이로 볼 때 북한은 해당 작품의 시대적 의의와 같은 문학사적 정보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학습 내용 요소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그림 7]에서 보듯이 북한에서는 영화를 교육 제재로 상정하여 영화의 장면 구성의 의미, 회상 장면의 영화적 처리 방법, 화면 분할 기법, 특정 장면(scene)이 몇 개의 화면(shot)으로 구성되었으며, 화면마다의 시간 길이, 화면의 시점(camera angle) 등에 대해 탐구하는 활동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영화에 관한 학습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교과서가 적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25]

4. 『국어문학』 교과서 현대소설/영화 단원의 교수-학습 활동

앞서 2장에서 『국어문학』 교과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면서 단원 구성에 관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현행 『국어문학』 교과서는 이전의 교과서에 비해 교육적으로 더 실질적이며 체계적인 단원 구성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국어문학』뿐만 아니라 2013년 이후 새로 발행된 소학교, 초급중학교의 『국어』 교과서 역시 이전에 비해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이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

그 개선 사항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선형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학교급 간, 학년 간 교육 내용의 계열화를 꾀하였다. 둘째, 교과교육을 통해

25) 남한의 2012 고시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과서 11종을 대상으로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교과서마다 영화와 관련된 학습 내용의 비중이 차이가 크고, 많은 교과서가 영화의 수용과 생산에 필수적인 내용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기범, 「문학 교과서의 영화 수용 양상 연구」, 『한국언어문학』 91, 한국언어문학회, 2014, 380면.

www.kci.go.kr

해당 교과의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의 신장도 강조하였다. 셋째, 과거에 비해 일방적인 지식 전달보다는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서의 내용과 형식을 개선하였다.[26]

북한의 소학교와 초급중학교에서는 <국어> 과목을 통해 듣기, 말하기, 읽기, 글짓기, 기초원리지식 영역으로 구별된 단원을 통해 학습하고, 고급중학교에 와서는 문학 제재를 중심으로 작품을 읽고 분석하며 듣기, 말하기, 글짓기 등 통합적인 활동을 통해 국어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이처럼 고급중학교의 『국어문학』 교과서에서는 '지식 습득→문학작품을 매개로 한 다양한 언어 사용 활동→태도 형성'으로 학습활동이 전개되도록 하고 있다. 문학교육학자의 입장에서 이는 매우 신선하고 부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지식→기능→태도'로 나아가는 학습 전개는 남한의 국어교육 과정과 동일하지만, 초등교육부터 중등교육까지 높은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문학을 중심으로 좀 더 심화된 언어활동을 통해 통합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작지 않다.

이런 면에서 북한의 국어교육은 이른바 '문학을 통한 국어교육'을 실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7] 이것은 근대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남한의 국어교육이 다분히 언어 사용 기능 중심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서 우리에게 깊은 성찰과 논의의 과제를 안겨준다.

한편, 북한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론적 기초가 되는 지식의 이해와 습득을 중시하는데, 『국어문학』 교과서에서 다루는 지식에 대해 『국어문학교수참고서』의 머리말에서는 "국어문학지식은 수학, 물리학을 비롯한 기

26) 조정아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KINU 연구총서 15-03, 통일연구원, 2015, 249-267면.

27) 김상욱은 전체에 대한 통찰, 실질적인 언어자료의 선택, 능동적인 참여의 보장, 현실적인 공동체의 건설, 진정한 발달에 대한 기획, 사회적·문화적 실천으로서의 국어 활동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 바로 '문학을 통한 국어교육'이라고 보았다. 김상욱, 「문학을 통한 국어교육의 재개념화」, 『문학교육학』 19, 한국문학교육학회, 2006, 34면.

www.kci.go.kr

초과학지식과 함께 전면적으로 발전된 선군혁명인재가 반드시 가져야 할 필수적지식이다."라고 그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고급중학교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습득해야 할 문학적 지식의 '범위와 수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 ㅇ단상, 장(중)편소설, 웅변글 등의 글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리해를 가지도록 한다.
- ㅇ글(작품)의 형태상특성에 맞게 이야기전개방식과 론리적련관관계를 알도록 한다.
- ㅇ글(작품)을 읽고 중점대목들과 구체적세부자료들을 찾아 분석종합하여 기본내용과 이야기줄거리, 단락과 글체계, 주인공의 성격적특징, 기본사상과 필자(작가)의 의도와 주장 등을 알도록 한다.
- ㅇ필자(작가)의 의도나 혹은 사상적내용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서술, 묘사, 대화, 주정토로)을 찾고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그에 대한 자기의 느낌을 가지도록 한다.
- ㅇ콤퓨터 혹은 도서관(실)을 리용하여 시는 10여편 암송하며 산문체도서는 17권정도 읽고 내용적측면들을 다 파악하도록 하며 명문장, 명구들을 발취할뿐아니라 어휘소유량을 늘이고 여러 분야의 지식을 스스로 파악하도록 한다.
- ㅇ문학작품의 소재, 성격과 전형, 주제와 사상 등에 대해 알고 활용할줄 알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일반적인 어휘력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남한의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교과서 하단에 각주 형식으로 낯선 어휘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 ㅇ글(작품)속에서 어휘, 표현의 뜻과 그 쓰임을 리해하며 활용할수 있도록 한다.
- ㅇ교재를 통해 어휘표현들의 뜻과 갈래, 뜻빛갈, 고유어, 외래어, 뜻같은말, 뜻반대말, 소리같은말 등을 체계적으로 알도록 한다.

www.kci.go.kr

○ 교재를 통해 20여개 정도의 성구, 속담들의 뜻과 쓰임, 표현적효과를 알도록 한다.

『국어문학』 교과서에서 학습활동을 '사색과 실천'이라고 명명한 것을 감안해 볼 때, 북한에서는 문학 이론을 익힌 후 작품을 통해서 올바른 삶의 방향과 방법을 '사색'해 보고, 이를 자신의 삶에서 '실천'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한의 문학교육에서 강조하는 '삶을 위한 문학교육'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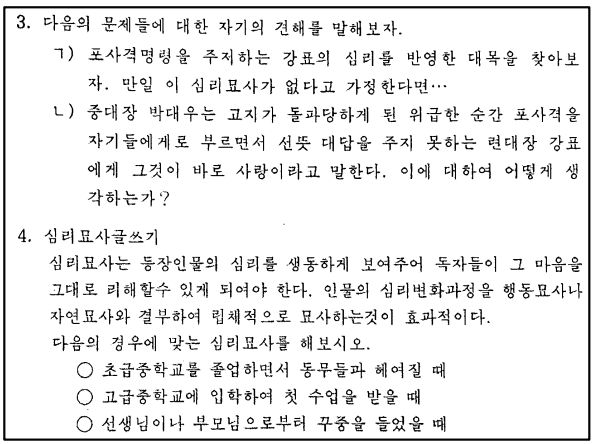
물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남한과 북한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실감할 수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이라는 절대적 애국심을 발휘하는 삶을 지향하는 북한과, 다양성이 존중되며 개인과 공동체의 원활한 소통과 공유가 보장되는 삶을 지향하는 남한은 아직까지는 맞닿을 수 없을 것 같은 괴리감을 안겨주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교육이념과 교수목표가 획일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북한의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교과서에서 제시된 학습활동이 실제 교실에서 얼마나 폭넓고 다양한 사색과 성찰을 담보할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북한 교과서의 '사색과 실천'에서 수행되는 학습활동의 방식과 범위이다. 즉, 학습한 지식을 활용하여 문학작품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과 특성을 해석하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하도록 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고(발표, 토론 등), 글 쓰고 관련된 자료를 찾아 읽는 다양한 활동으로 통합하도록 하는 학습활동이야말로 학생이 깨닫고 익힌 바를 자신의 삶의 태도에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이므로 교육적으로 매우 유익한 학습활동이 펼쳐지게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

28) 남한의 현행 2015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선택과목 『문학』의 성격에서 "문학 활동에 참여하여 이를 자신의 삶과 연계함으로써 자아를 성찰하고 정서를 함양하며 창의적인 언어 능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나아가,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 경험과 미의식을 파악하고 공유함으로써 세계관을 확충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남한도 '삶을 위한 문학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www.kci.go.kr

다.[29] 이것은 지식과 삶의 태도가 별개가 되는, 즉 '지행합일'과 무관하게 진행될 우려가 큰, 남한의 문학 수업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결과이다.


3. 다음의 문제들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말해보자.
ㄱ) 포사격명령을 주지하는 강표의 심리를 반영한 대목을 찾아보자. 만일 이 심리묘사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ㄴ) 중대장 박대우는 고지가 돌파당하게 된 위급한 순간 포사격을 자기들에게로 부르면서 선뜻 대답을 주지 못하는 련대장 강표에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4. 심리묘사글쓰기
심리묘사는 등장인물의 심리를 생동하게 보여주어 독자들이 그 마음을 그대로 리해할수 있게 되여야 한다. 인물의 심리변화과정을 행동묘사나 자연묘사와 결부하여 립체적으로 묘사하는것이 효과적이다.
다음의 경우에 맞는 심리묘사를 해보시오.
○ 초급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동무들과 헤여질 때
○ 고급중학교에 입학하여 첫 수업을 받을 때
○ 선생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을 때

[그림 8] 『국어문학』의 학습활동의 일부

이와 관련하여 북한 특유의 교수법인 이른바 '깨우쳐주는 교수법'을 주목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북한은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였다.[30] 그래서 그들은 미래 사회를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로 규정하고,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지식과 실천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교수법'을 실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31] 이 교수법은 "학

29) 이에 비해 남한의 대다수 교과서에서 표면적으로는 대단원에서 영역 통합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소단원을 들여다보면 듣기 ·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매체언어 등 각각의 국어 하위 영역들이 독립적으로 병렬되어 있으며, 문학과 다른 언어 사용 영역들이 따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최홍원, 「북한 문학교육을 통한 문학교육론의 투시와 성찰」, 『문학교육학』 64,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360면.

30) 조정아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KINU 연구총서 15-03, 통일연구원, 2015, 249-267면.

31) 장윤순, 「새 교과서를 받아안고 신심이 넘친다」, 『인민교육』 2014년 3호, 교육신

www.kci.go.kr

생들 자신이 능동적인 사고 활동을 통하여 교수 내용을 깨닫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조장시키며 학생들의 사유 활동을 적극 추동하여 그들 자신이 사물 현상의 본질을 스스로 파악하고 체득하도록 하는 교수 방법"을 말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는 토론을 중시하고, 문답식 학습과 실물을 통한 교육 등을 활발히 하고 있다.[32] 이처럼 고급중학교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학습활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결코 작지 않다.

5. 결론

북한의 문학사 인식은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에 강하게 뿌리박고 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문학에 대해서도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항일혁명 문학예술에 대한 과도한 정통성을 부여하는 주체문예이론의 편향성 탓에 카프를 중심으로 한 프로문학마저도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 무시했던 것이다. 북한에서 남로당 계열 문인은 완강하게 금기시되었으며 대다수 중도파나 민족주의 계열, 순수주의와 모더니즘 등의 문학은 여전히 외면되고 있다. 그나마 1990년대 이후에는 1970~1980년대의 왜곡된 편향성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33]

이러한 북한의 문학사적 인식과 문학교육의 특징을 이 글에서는 새로 간

문사, 19면; 최홍원, 「북한 문학교육을 통한 문학교육론의 투시와 성찰-북한의 2013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64,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374면 재인용.

32) 동영준, 「깨우쳐 주는 교수방법이란」, 한말길 편,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 우리교육, 1999, 72면.

33) 이에 대해서는 류만, 『조선문학사 9』,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영인본, 한국문화사, 1996)를 검토한 김성수의 견해를 참고할 것. 김성수, 「북한의 일제강점기 문학사 서술」, 민족문학사연구소 남북한문학사연구반 편, 『북한의 우리문학사 재인식』, 소명출판, 2014, 73-103면.

www.kci.go.kr

행된『국어문학』교과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3학년 교과서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교과서가 작품 수록 분량의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교과서에서 작가나 문학 창작 방법 및 문예사조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신채호, 현진건, 심훈, 채만식 등과 같이 과거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작가들이 거명되기도 하고, 신경향파 문학과 카프 문학의 의의를 명시해 놓은 것도 찾아볼 수 있었다.[34]

하지만 여전히 이번『국어문학』교과서에도 분단 이전의 작품이 매우 적다는 점은 통일을 대비하는 문학교육을 구상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이다.[35] 특히 우리의 문학사에서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는 소설 문학의 꽃을 피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교과서에서는 이 시기의 주옥같은 작품들을 외면하고 단지 카프 계열의 작가에 의한 1920년대의 작품 두 편만 다루고 있는 것이다. 남한에서 이광수, 김동인, 현진건, 채만식, 염상섭, 김유정, 이상, 박태원, 이효석, 이태준, 김동리 등에 의해 창작된 다채로운 작품들을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북한 문학교육의 협소한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문학교육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단화되고 있으며, 김일성 일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며, 문학이 단순한 지식 습득과 기능 신장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언어의 미적 형성화로써 우리가 심미적, 윤리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경험하도록 해 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의 문학

34) 오창은,「북한의 1927~1940년대 전반 현대소설사 서술」, 민족문학사연구소 남북한문학사연구반 편,『북한의 우리문학사 재인식』, 소명출판, 2014, 389-422면.

35) 최홍원은 분단 이전의 작품이 적은 이유로 과거의 문학 교과서가 북한식의 문학사를 중심으로 연대기적으로 구성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국어문학』교과서는 주제별로 대단원을 묶어 편성한 점도 그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최홍원,「동질성과 이질성의 길항과 통일 문학교육의 도정-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해 본 통일 문학교육의 방향과 과제」,『문학교육학』62,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66-67면.

www.kci.go.kr

교육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를 되짚어 보게 한다.

우리가 북한의 교과서를 살펴볼 때면 언제나 분단된 시간과 서로 다른 이념과 정치 체제 만큼 너무도 큰 간극을 확인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는 이질감과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이 글 역시 '혹시나' 하는 기대를 안고 새로 간행된『국어문학』교과서를 들여다보면서 여전히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은 괴리를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비관과 낙담만으로는 아무런 역사적 진보를 담보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통일된 문학교육'이라는 민족적 과제가 숙명처럼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남한과 북한은 같은 말과 글을 쓰고 있는 단일 민족이다. 같은 말과 글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언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학에서부터 동일성을 회복하는 길을 찾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일 것이다. 동일한 문화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인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질성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의 길을 찾아 나가려는 노력만이 통일된 조국의 이상적인 문학교육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시작된 이 연구는 북한의 문학교육을『국어문학』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같은 역사와 언어를 가진 북녘 동포의 문학교육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점은 없는지, 혹여 우리 남한의 문학교육에서 놓치고 있는 점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성찰해 볼 수 있었다.[36]

문화적 이질성을 가진 북한의 문학교육을 목도하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들의 문학교육 양상을 확인하고, 냉소적인 무시와 강제적인 포섭의 대상으로 그들의 문학교육을 바라봐서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일말의 여지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한 문학이 서로 다른 배경과 조건에 의해 생산되고 수용되어 왔던 것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요인과 배경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반성을 통해 서로를

36) 김대행은 북한의 문학교육은 사상성에 치중되어 있고, 남한의 문학교육은 분석에 치중하고 있어 둘 다 문학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대행,『통일 이후의 문학교육』, 역락, 2008, 8면.

www.kci.go.kr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호 이해와 소통을 위한 언어문화적 역량이 바로 국어 교과를 통해 길러질 것임에 틀림없다.[37] 이 글은 그러한 모색을 위해 내딛는 한 걸음이라 할 수 있다.

37) 김미영 외, 「통일 시대 문학교육의 한 방법, 간문화적 역량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54, 청람어문교육학회, 2015, 49-83면.

www.kci.go.kr

참 고 문 헌

1. 자료

황금순 외, 『국어문학(고급중학교 1학년용)』, 교육도서출판사, 2013.

라성학 외, 『국어문학교수참고서(고급중학교 1학년용)』, 교육도서출판사, 2013.

최학 외, 『국어문학(고급중학교 2학년용)』, 교육도서출판사, 2014.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류만, 『조선문학사 9』,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영인본, 한국문화사, 1996).

2. 논저

강보선, 「북한 초급중학교의 학교문법 내용 분석」, 『국어교육』 161, 한국어교육학회, 2018.

강보선 · 김진숙 · 박수련, 「북한의 2013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국어교육연구』 62, 국어교육학회, 2016.

권순희, 「2013년 개정 북한 국어 교과서 분석」, 『국어교육학연구』 53(3), 국어교육학회, 2018.

김대행, 『통일 이후의 문학교육』, 역락, 2008, 8면.

김미영 · 유리, 「통일 시대 문학교육의 한 방법, 간문화적 역량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54, 청람어문교육학회, 2015, 49-83면.

김상욱, 「문학을 통한 국어교육의 재개념화」, 『문학교육학』 19, 한국문학교육학회, 2006, 34면.

김성수, 「북한의 일제강점기 문학사 서술」, 민족문학사연구소 남북한문학사 연구반 편, 『북한의 우리문학사 재인식』, 소명출판, 2014, 73-103면.

김진숙,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에 따른 학제와 교육과정 개정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16년 6월호, 14면.

김진숙 · 박순경 · 이민형 · 강보선 · 주주자 · 심광택 · 김한종 · 이인정 · 이나연,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연구(Ⅰ)~(Ⅲ)』, 한국교육과정평가

www.kci.go.kr

원, 2015~2017.
박기범, 「문학 교과서의 영화 수용 양상 연구」, 『한국언어문학』 91, 한국 언어문학회, 2014, 380면.
박기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현대소설 제재 분석」, 『국어문학』 71, 국어문학회, 2019, 553면.
박기범, 「북한 초급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 문학교육의 특성」, 『한국문학논총』 81, 한국문학회, 2019.
변경가 · 권순희, 「북한 고급중학교 『국어문학』에 수록된 제재 양상 및 특징-김정은 시대의 2013 교육강령 및 교과서를 대상으로」, 『우리말연구』 56, 우리말학회, 2019.
엄인영, 「북한 국어, 문학 교과서의 주체사상 교양 교육의 내용 요소 탐구」, 『문학교육학』 62,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오창은, 「북한의 1927~1940년대 전반'현대'소설사 서술」, 민족문학사연구소 남북한문학사연구반 편, 『북한의 우리문학사 재인식』, 소명출판, 2014, 389-422면.
이경화, 「북한 중등 교과서의 현대시 제재 수록 양상 고찰」, 『문학교육학』 62,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조정아 · 이교덕 · 강호제 · 정채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KINU 연구총서 15-03, 통일연구원, 2015, 11-267면.
주재우, 「김정은시대의 북한 초급중학교 국어교과서 분석」, 『독서연구』 48, 한국독서학회, 2018.
주재우, 「북한 초급중학교 쓰기교육 내용 분석-북한의 2013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작문연구』 38, 한국작문학회, 2018.
진용성 · 차해나, 「북한 소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2013)와 남한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2017)의 비교 연구」, 『청람어문교육』 66, 청람어문교육학회, 2018.
최영지, 「남북한 국어 교과서의 비교 연구-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7.

www.kci.go.kr

최창헌, 「남한 『문학』과 북한 『국어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문학 작품의 비교 연구-김소월의 「초혼」과 최서해의 「탈출기」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23, 구보학회, 2019.
최홍원, 「동질성과 이질성의 길항과 통일 문학교육의 도정-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해 본 통일 문학교육의 방향과 과제」, 『문학교육학』 62,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58-67면.
최홍원, 「북한 문학교육을 통한 문학교육론의 투시와 성찰-북한의 2013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64,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360-368면.
한말길 편,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 우리교육, 1999.
홍지혜, 「북한의 2013 국어과 교육과정과 국어 교과서 분석 연구-북한 초급 중학교 『국어1, 2, 3』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8.

www.kci.go.kr

【Abstracts】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Literature Education in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extbooks

– Focusing on Modern Novels/Film Units –

Park, Kibeom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novels/film education in North Korea, targeting textbooks and guidebooks for high school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ccording to the current 2013 revised curriculum of North Korea.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literary education and modern novel/film education are as follows.

In order to cultivate loyal talents who contribute to the country through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ourse, North Korea fosters ideological education and revolutionary sentiment, focusing on literary works. It is for educational purposes to get enough mastery.

North Korea's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extbooks are organized around themes and have a more substantial and systematic unit structure than before.

The higher the grade, the bigger the proportion of novels, and the bigger the volume. Also, there were more works after the liberation than those before the liberation, and the world masterpieces also used works based on the early capitalist era. Almost all of the subjects of the work can be converged with loyalty to the family of Kim Il-sung and his country. In the background of the events of the times, ordinary figures grow as socialist heroes, works depicting their achievements, and works focusing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hard work. The selection of these

www.kci.go.kr

works was based on North Korean history and literary history.

North Korea also focused heavily on genre knowledge and the author's literary work. In addition, North Korea was pursuing various educational activities related to film by considering it as an educational sanction.

Learning activities are developed through 'acquisition of knowledge → activity of various languages through literary works → formation of attitudes.' Integrated language literacy.

It is hoped that such a textbook inquiry can be a useful reference for designing literature education after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Key Words : North Korean literature education, modern novels/film education in North Korea, high school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extbook, education for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이 논문은 2020년 02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20년 03월 1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20년 03월 1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www.kci.go.kr

www.kci.go.kr